

민형배·김영록 '2강 접전'...신정훈·강기정 추격 양상

전남광주통합시장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레이스가 '2강 2중 구도'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초반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정훈(나주·화순)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격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30-31일 실시한 조사(1502명 대상)와 KBC광주방송·광남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2월 2-3일 실시한 조사(1000명 대상)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번 선거는 철저한 '지역 대결'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선두권 경쟁은 치열하다. KBC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질문 결과, 민형배 의원은 18.5%를 기록해 16.8%를 얻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직전 광주일보 조사(표본오차 ±2.5%p) 결과 민 22.7%, 김 18.1%의 비해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거나 정체된 모습이다. 여론조사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 기반'이 지지율의 핵심 동력임이 드러난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 프리미엄과 탄탄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전남 지역에서 23.3%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재선 도지사로서 무난한 도정 운영과 국비 확보 성과, 국책 사업 유치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통합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즉각



강기정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이병훈

정준호

주철현

(가나다순)

극심한 소지역 대결 구도...지역 기반이 지지율 핵심 동력 현역 프리미엄과 20% 육박 부동산이 승패 가를 변수 될 듯

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행정이 필요하다"며 안정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지지율이 11.9%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아킬레스건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최근 광주 AI 산업 단지과 구 도심 재생 현장을 방문하며 광주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 의원은 KBC 조사결과, 광주에서 27.0%의 지지를 얻어 전남(12.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김 지사는 전남에서 21.7%를 기록해 광주(10.4%)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이는 통합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여전히 '내 지역 출신'을 선호하는 소지역주의 투표 성

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지역 기반 투표' 성향이 짙다.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 전역에서 33.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 23.3%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강한 추진력'과 '개혁적 이미지'를 무기로 내세우며 통합특별시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민 의원은 전남 동·서부권을 잇따라 방문하며 "전남의 잠재력을 광주의 인프라와 결합해 폭발 시키겠다"고 강조하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전남 지역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

(13.6%)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본선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강 후보가 추종하는 사이 중위권 후보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은 KBC 조사에서 9.4%를 기록해 광주일보 조사(9.2%) 때보다 소폭 상승하며 3위권을 유지했다. 여수 출신의 주철현 의원 역시 7.6%(전남 11.7%)로 광주일보 조사(6.8%)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은 각각 전남 중부권과 동부권이라는 확실한 '안방'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경선 과정에서 외연 확장을 얼마나 해낼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반동의 불씨를 살렸다.

광주일보 조사에서 6.5%에 머물렀던 강 시장은 KBC 조사에서 7.0%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탔다.

여전히 한 자릿수 지지율로 선두권과는 격차가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력을 감안할 때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시장은 "통합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로서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어, 바닥 민심이 서서히 반응하고 있다"며 추격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결국 최초의 통합 시장 선거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가 반영되느냐, 아니면 향후 통합시를 이끌어 나갈 능력있는 시장을 뽑느냐는 광주와 전남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부동산이다. 광주일보의 조사에서도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합계 17.6%에 달했고, KBC 조사에서도 '없음·모름' 등 부동산이 19.0%에 달해 향후 부동산의 표심 이동이 민주당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후보들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광주와 전남의 유권자 수가 팽팽하고 지역 대결 구도가 뚜렷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층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리고 부동산이 현역의 '안정'과 도전자들의 '변화' 중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종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승부 가를 '3대 변수'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의 향방은 단순한 지지율 대결을 넘어선 고차원적 대결이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변수가 적지 않다.

첫 손 꼽히는 결정적 변수는 '민주당 경선 물'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민형배, 김영록, 강기정, 신정훈, 주철현, 이개호, 이병훈, 정준호 등 8명을 훌쩍 넘긴다.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원상 경선을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1차 컷오프를 넘어선 '조별 리그' 도입설까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권 후보 그룹과 전남권 후보 그룹으로 나누어 예선을 치르거나,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특정 지역 기반이 강한 후보나 조직력이 탄탄한 후보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경선 물 전쟁이 본선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변수는 '합종연횡'의 가능성이다.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연합이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경선물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든 현재의 다자 구도에서는 결선 투표가 불가피하다. 이때 3위권 밖 후보들의 선택이 승패를

'민주당 경선 물'·'합종연횡'·'소지역주의'가 승부 가른다 통합 피로감에 '반대론' 변수...구체적 비전 제시가 관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민협의회 발대식이 지난달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 회원들이 행정통합 범시민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른다. 특히 전남 권역별 강자인 신정훈, 주철현 의원 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들이 '전남 소외론'을 명분으로 김영록 지사와

손을 잡는 '전남 대연정'이 성사된다면 광주 기반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강기정 시장이 민형배 의원과 단일화를 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결선에 진출하여 '광주 대표

주자'로 나선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주목받는 시나리오는 통합을 주도한 강 시장과 김 지사의 연대 가능성이다. 현재는 경쟁 관계지만, 선거 막판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명분으

로 두 현역 단체장이 손을 잡는다면 광주와 전남 조직이 결합하는 매머드급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변화'를 기치로 내건 민형배 의원의 독주를 저지할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이 외에도 전남 중부권의 신정훈 의원과 동부권의 주철현 의원이 '전남 중심론'으로 뭉치거나, 광주권 후보들이 '광주 주도권'을 위해 단일화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세번째 변수는 '소지역주의'의 전면 부상이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 대결보다는 '우리 지역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공산이 크다.

인구수는 전남(180만명)이 광주(140만명)보다 많지만, 투표 응집력과 여론 전파력은 도시 지역인 광주가 더 높다는 분석이 있다.

광주 유권자들이 "전남 도청도 봤는데 시장까지 줄 수 없다"며 결집하거나, 전남 유권자들이 "광주에 흡수될 수 없다"며 뭉칠 경우 선거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통합 피로감'과 '비전 경쟁'이다. 통합 논의가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와 소외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반대 투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후보들이 단순히 장밋빛 미래만 외칠 게 아니라, 통합의 부작용을 해소할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부동산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 고

전 전국저축은행심의회의장 故문병식님께서 2026년 2월 11일 별세하셨기에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 빈 소 : VIP장례타운 VVIP 201호
- 장 지 : 보성 노동면 선영
- 발 인 : 2026년 2월 14일(토) 오전 8시
- 연락처 : 02-581-1900

- 아들 : 문승권
- 딸 : 문수영
- 사위 : 이석환
- 손 : 이진한, 이윤지